

대사염증질환 치료제 개발 나선다

전북대 박병현 교수 연구팀,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 대사질환 병태생리 규명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과 같은 대사질환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의료비 역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대사염증 연구와 관련 분야 신약개발은 매우 유망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이러한 대사염증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연구에 나선다.

박병현 교수(의대 생화학교실)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기초의학분야)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박 교수팀은 정부로부터 7년간 65억원을 지원받아 대사염증 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 집단을 발굴·육성하여 국가 기초연구 역량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의·치·한의·약학 분야 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의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전북대 박병현 교수팀은 '대사염증 연구센터'를 구축해 염증의 관점에서 대사질환의 병태 생리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박병현 교수팀은 지난 9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8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동일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인



우리 농식품으로 개발된 기능성 식품 10일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우리 농식품의 숨겨진 매력과 다양한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건강지킴이 우리 농식품' 특별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된 기능성 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뇨질환 연구센터' 과제를 수행하며 염증반응이 대사질환 발병의 핵심 기전을 증명하는 바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정상체중이면서 복부비만과 대사이상을 보이는 마른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염증을 유발하는 신규 유전자를 발굴하고 동물모델을 통해 기능을 규명하는 한편 궁극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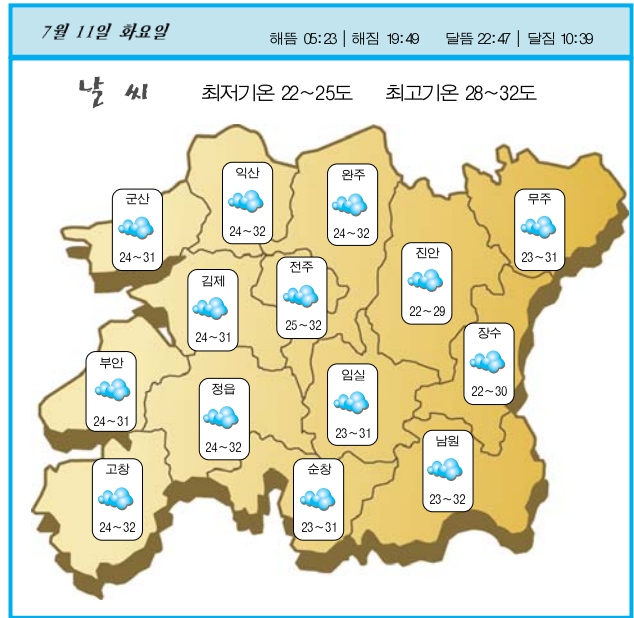
로 발굴 유전자의 효소활성 조절을 통해 대사질환을 제어할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사염증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 그리고 차세대가 이끌어 나갈 의학자료를 양성할 계획.

연구책임을 맡은 박병현 교수는 "이

번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사질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염증 연구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드론축구 저변 확대 위해 드론축구공 구입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시가 드론축구 활성화와 지역 기업 기 살리기 위해 지역업체로부터 드론축구공을 구입했다.

시는 10일 드론축구공을 판매하는 지역업체인 신드론을 통해 드론축구공 1대를 구입했다.

이번 드론축구공 구입은 전주시 관내 드론축구공 생산업체의 기를 살리고, 드론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드론축구공의 최종 조립을 맡고 있는 신드론은 지난 3월 전주시와 드론축구공 전속시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현재까지 약 450개의 드론축구공을 생산·판매해왔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달 열린 제1회 드론축구대회에 드론축구대회에도 우승 상금 500만원을 합친하고, 헬스드론축구단도 운영하는 등 드론축구 보급을 통해 전주를 드론레저스포츠산업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축구공 구입은 전주가 드론축구 종주도시로서 세계적인 드론레저스포츠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앞으로 드론축구공을 더욱 확산시켜,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레저스포츠산업 시장이 형성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객사 앞 충경로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오는 29일 개최... 물놀이·공연·생활문화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차도 위의 자동차를 비우고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오는 29일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열린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객사 앞 충경로사거리에서 다가교사거리까지 충경로의 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차가 없는 차도를 사람과 생태 문화 예술로 채우는 '제1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원도심

활성화와 충경로 주변 상권을 살리고 자 하는 충경로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매일 둘째 주 토요일에서 마지막 주 토요일로 시간을 옮겨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던 행사를 하절기에는 행사시간을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옮겨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한 낮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기온이 떨어

지는 저녁무렵에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3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물놀이와 한여름 밤에 휴식 같은 다양한 공연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마당, 공연마당, 생활문화 체험마당 시민장터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우회도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구거리와 전주천 동로 시청주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기로 했다.

김창권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행사는 충경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변상인들과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주체가 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주 시민들께서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즐기고 호흡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마을세무사 등 세수확충 기여자 표창 수여

전주시가 지방세 세수확충에 기여한 마을세무사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10일 전주시장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기여 기업 및 개인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 상반기 상담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지방세정 발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 기여한 마을세무사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주시 마을세무사들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데이(Day)'를 통해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시민들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는 또 이날 지방세 세수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JB우리캐피탈과 담당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JB우리캐피탈은 자동차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지난 2013년 3월 대구에서 전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같은 해 11월 총 4,685대의 리스차량 사용분거지를 전주로 이전해 매년 40여억 원의 자동차 세수를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시가 역동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수상자들과 같이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지역발전의 역할이 크다"며 "세계 속의 전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이 돼주신 모든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에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